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 완공

남원시, 1년여만인 지난해 연말 개통... 이용객들 불편 사라져

시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남원시 관내 승화원과 승화당을 연결하는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완공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말끔히 사라지게 됐다.

남원시는 그동안 승화원 및 승화당의 진입로가 비좁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들어가 1년만인 지난해 연말 완공을 하고 개통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총 연장 1백86미터, 폭 8미터에 2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진행된 이

공사는 2015년 7월 설계용역을 거쳐 그해 10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심사 결정 받은 후 공사에 들어가 1년여만인 작년 연말 완공을 했다.

지난 1986년에 개관한 승화원 및 승화당은 2012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부족한 시설을 개선했으며 9천4백23㎡의 면적에 3기의 화장로를 운영, 하루 2백50여명이 이용하는 서남권 지역의 대표적 장사시설로 자리매김 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화장을 선호하는 장례문화가 크게 늘면서 시세의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승화원 및 승화당의 진입로가 좁아 그동안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다"면서 "그러나 1년여의 공사 끝에 진입로를 확포장해 시민들의 불편을 말끔히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연말부터 국비 6억 원 등 총 사업비 10억6천만 원을 들여 승화원 인근에 공설자연장지 조성공사를 추진중에 있는데 올 상반기 이 시설이 완공되면 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지를 제공하게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사회복지분야 480억원 투입

마을경로당 운영비 ·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등 운영

순창군이 군민들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복지시책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사회복지분야에 총 48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히며 군민 행복지수가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군이 사회복지분야에 올해 투자할 규모는 지난해 476억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수치다. 2014년보다는 100억 정도가 증가한 규모로 최근 3년새 증가폭이 눈에 띈다. 늘어난 예산만큼은 더욱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쳐 군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천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전체인구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노인복지 사업에 249억 원을 투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인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4억원, 마을경로당 운영비 및 관리비 23억원, 외곽계 홀로사는 노인들을 위한 특거노인 보호비 등에 212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군은 마을경로당에 지원되는

간식비 기준액을 지난해에는 회원수 20명 단위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 부터는 10명단위로 기준을 현실화해 경로당별로 5~10만원의 인상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문화의집 1층을 리모델링해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으로 개조해 올 7월에 개관할 계획이다. 운영은 회원제로 하며 대관료는 무료다.

동계, 북동, 쌍치면 등 원거리에 거주한 아동을 위해 택배배달 서비스도 병행할 방침이다.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설치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이들뿐 여성들의 기대감이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북동공립어린이집은 8억 9,700만 원을 투자해 새로 신축하고, 공공승마장 옆에는 90억 원을 들여 청소년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도 시행한다.

특히 군은 올해는 여성친화도시로 인정받기 위해 공중화장실 10개소에

여성 안심벨을 설치하고, 출산장려와 산모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출산 가정 건강관리사 파견사업도 추진한다.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자에게 한국어 능력 배양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교육 참여율이 높은 10가정에게 공부방 꾸며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정 식생활 개선 요리교육과 자녀들에게 스피치 및 인성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순창군은 다양한 사업에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기초생활분야 전국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포상과 자활사업 전국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는 등 복지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

/순창=이왕원 기자

고창군, 만 60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접종

보건소 주민등록증 지참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적극 시행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민선6기 공약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해 왔다.

노인계층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매우 치명적

으로 균혈증의 경우 사망률은 60%이고, 수막염의 경우 사망률은 80%에 이르는데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만 65세 이상 국민의 무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시작했으며 고창군은 한발 더 나아가 만 60세부터 64세 어르신들도 집중 건강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접종 기회를 확대했다.

올해 폐렴구균 무료접종 대상자는 고창군에 주소를 둔 1957년 출생자

전체이며 그 동안 접종을 받지 못했던 만 60세 이상 주민은 모두 접종이 가능하다.

대상자들은 가까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오전 중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폐렴 예방접종을 향상으로 개인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노인 인구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유병률 하락과 질병부담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내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접종을 받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삼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설명회 성료

'꽃대궐 삼계 만들기' 일환

정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을 준비 중인 임실군 삼계면은 3일 삼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이고장 출신 이흥재(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 행정학박사의 재능교부를 통하여 박사공의 과거와 현재의 통찰을 통한 꽃대궐 삼계 만들기 라는 주제로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및 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삼계면 박사공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김학지 위원장은 "삼계면은 박사공의 고향으로 우리의 자랑인 지역인재네트워크의 재능교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신임 노준환 삼계면장은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삼계면의 역

점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다"며 지역민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도서관, 전래놀이교실 운영

임실군립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전래놀이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전래놀이 교실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전래놀이 지도사 자격증반'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오는 21일까

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소제 군립도서관에서 열린다.

도서관을 찾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산가지치기, 딱지치기, 고무줄놀이, 망쥬기 등 다양한 전래놀이 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도서관은 책을 보는

곳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평생학습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군립도서관(☎ 640-2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동리시네마, 최다 관객 수 돌파

고창 작은영화관 유료 관람객 7만8000여명

고창 동리시네마가 지역 문화공간의 중심점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20일 문을 연 고창 작은영화관 '동리시네마'가 지난 한 해 동안 유료 관람객 7만 8000여명을 돌파하면서 군민 문화향유 기회를 충족시키는 사람방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는 전북지역 작은영화관 중 최다 관람객 수다.

개관 이래 현재까지 누적관람객 18만3300여명이 관람한 동리시네마는 최신 개봉작 5~6편을 2개관에 다양하게 상영해 군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다.

인기 있는 상업영화 뿐만 아니라 예술, 독립, 웰메이드 영화를 지속적으로 상영하고 있어서 개관 전에는 영화관람을 위해 인근 대도시까지 나가야 했던 군민들의 불편함을 덜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

지난 해 11월 말 개최된 '작은영화관 기획전'에 12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호응을 얻었다.

동리시네마가 하루 평균 200여명

이 찾은 고창군민들이 한 해 평균 1.3회 정도의 영화관람을 한 것으로 나타날 만큼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저렴한 영화 관람료와 최신 상영시설을 갖춰 대도시까지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최신 개봉작들을 관람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군은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상영시설 외에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휴게시설과 편의시설, 내부 인테리어, 부족한 좌석수를 차차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 작은영화관을 통해 영화 관람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영상제작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해 고창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주민시네마스쿨에 참여한 학생들이 '2016 전북사랑 UCC공모전' 청소년부문 대상'도 수상하며 꿈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어르신과 소외계층들의 관람 기회도 확대해 나가면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자 문화 감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TV쇼 진품명품 '임실편' 성료

KBS 인기 프로그램 'TV쇼 진품명품' 출장감정이 지난 3일 임실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개그맨 김중국 씨의 사회로 균형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진동민(고서화), 김상환(호서), 이상문(도자기), 양의숙(민속품) 전문 감정위원과 의뢰인, 주민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앞서 군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지난달부터 감정 의뢰품을 접수 받으며 주민들이 소중히 간직하던 도자기, 고서적 등 총 110여점이 접수되는

등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지난 1741년 작성된 노소계안이 300만 원의 감정가를 받아 최고가로 선정됐으며 돈대기마을 용기를 비롯한 5점은 분방송에서 평가받게 된다.

한 참가자는 "소중히 간직하던 조상들의 유물과 서적들의 출처와 쓰임새를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촬영된 내용은 오는 2월 12일 오전 11시 KBS 1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자동차세 미리납부 10% 할인 혜택

1월 10% · 3월 7.5% 등

순창군이 관내 등록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간세액을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혜택을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이상의 경우 6월과 12월에 분할 납부하고 있으며 1월에 연납제도를 신청하면 세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에는 2.5%를 할인해 준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전화 650-1358번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지방세종합정보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의 소유자들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되며 10% 할인된 2017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1월중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신청은 이달 말일까지 계속 접수 받는다. 연납은 자금이체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3,008건에 6억 9,500원을 연납신고로 납부한 바 있다.

군은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연납제도 확대를 위해 이장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활동을 진행해 연납제도 이용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남원보건소, AI인체감염예방 당부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폐사한 채로 발견된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A가 확진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인체감염예방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일반시민 행동수칙은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 ▲야생조류 및 동물 사체를 만지지 말 것 ▲손을 자주, 30초 이상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하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이 있다.

또한,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한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620-7923)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남원시보건소에서는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복 등 방역물자 비축,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체계 점검과 함께 AI 고위험군에 대한 꾸준한 관리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경찰, 빈집털이 예방교육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 남계파출소(소장 이동권)에서는 관내 마을회관을 방문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빈집털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남계파출소는 노인들이 많이 운집한 경로당을 선정 1일 2-3개소 순회 어르신 교통사고 발생이 보행의 안전도가 높은 오전 10-12시 낮시간대에 많이 발생됨에 따른 점을 감안 어르신들 상태 도로 무단 횡단 및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건너는 사례의 위험성 등 교통안전사고예방 요령을 홍보하였다.

또한 최근 인접서 등에서 발생한 여행성범죄관련 마을회관 등에 외지차량기록부를 비치 낚시차량을 기록해 두는 습관을 갖는다면 절도예방에 효과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동권 파출소장은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며 "어르신들의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을 통한 경각심을 심어드릴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임실군, 맞춤형 한방주치의 운영

임실군은 무료 한방 의료서비스 '맞춤형 한방주치의'를 연중 운영해 의료취약계층인 거동불편·불능자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선다.

군 보건의료원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거동불편·불능자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90여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순회 방문을 통해 혈압, 혈당 등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방진료(침, 뜸, 한방약제 투약)를 비롯해 운동지도, 만성질환?중증?낙상 예방교육 등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프로그램으로 건강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찾아가는 보건 의료 서비스로 외출이 어려운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앞장설 것"이라며 "사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